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대형 기술주 반등에 미국증시 상승..다우 최고가

- 미국 증시 상승: 대형 성장·기술주 중심 반등
- 알파벳 편입 효과..다우 지수 사상 처음 52,000 돌파
- 달러/엔 162엔 근접..금값 4,000달러 초반까지 하락

Summary

미국증시 반등: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미국증시는 6월 29일(현지시각) 일제히 반등. 중동지역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한 경계감과 이번주 고용 보고서 발표를 앞둔 관망세 등이 지속됐지만 월말, 분기말, 반기말을 앞두고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돼 AI와 반도체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타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59% 상승한 52,182.74에 마감해 사상 처음으로 52,000선을 돌파하며 최고가를 경신했고, 나스닥 지수는 2.07% 상승한 25,820.14에 거래를 마칩. S&P500 지수는 1.18% 상승한 7,440.43에 마감했고 나스닥 100 지수는 2.26% 상승했음.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 지수는 0.01% 상승. 시카고 옵션 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 VIX는 4.13% 하락한 17.65에 마감.

(다우지수 +0.59%/ 나스닥 +2.07%/ S&P500 +1.18%/ 러셀2000 +0.01%)

알파벳 편입 효과

이날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던 데에는 이날부터 버라이즌을 대신해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에 공식 편입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의 힘이 컸음. 검색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사업을 보유한 대형 기술주인 알파벳이 다우지수에 편입되면서 다우지수의 구성 변화 자체가 매수 재료로 작용했다는 분석. 알파벳은 이날 5% 가까이 급등. 다만 최근 주간 수익률에서 7주 중 1주를 빼고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부진을 보이고 있는만큼 회사의 AI 지출이 실제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시장의 의문을 해소해야 궁극적으로 반짝 편입 효과가 아닌 실질적인 성장 기대를 반영, 지수와 원-원 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최근 알파벳은 제미나이와 코딩 도구 개발에 관여했던 구글 딥마인드 연구자들이 엔트로픽, 오픈AI 등의 경쟁사로 이탈하고 있으며 컴퓨팅 자원 접근성이 제약으로 부각되고 있기도 함. 관련해 전일에는 알파벳이 컴퓨팅 용량 부족으로 자사 AI 모델인 제미나이와 관련, 메타의 사용을 제한했다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있기도 했음.

연화 약세 지속..달러/엔 162엔대 목전

달러 대비 엔화 가치가 이날 달러/엔 환율 기준 162엔대에 바짝 붙어 1986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함.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고 미국과 일본의 금리 차가 엔화 약세를 키웠다는 분석인데 앞서 일본 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했지만 미국과의 금리 격차를 상쇄하기에는 부족했다는 것. 현재 수준의 엔화 약세는 일본 내에서는 수입 물가와 소비자 물가 부담을 키울 수 있고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일본 당국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과 그로 인한 아시아 통화 전반의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잠재한 시장 내 변화 요인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금값 하락세: 4,000달러 지킬까

엔화뿐 아니라 금도 급격한 약세 흐름을 보이는 자산 중 하나. 국제 금 가격은 이날 COMEX 기준 트로이 온스당 4,000달러 초반까지 하락했고 현물 가격은 앞서 지난 24일 이미 7개월만에 4,000달러를 이탈했음. 올해 1월까지만 해도 현물가 기준 온스당 5,600달러선을 넘보며 사상 최고를 기록하던 금값이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해 기술적으로 약세장에 진입한 상황. 금값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건 연준의 긴축 가능성에 따른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의 상승. 이외에도 AI 투자 열풍의 영향으로 투자 자금이 금과 같은 안전 자산에서 주식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 이런 가운데 중국 금융권은 최근 소매 투자자들의 귀금속 레버리지 거래를 전면 중단하는 등 개인 투자자 보호 조치를 취하기도 했음. 다만 현재 시장이 연준의 긴축 가능성을 과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때문에 금값의 급락은 곧 진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음.

연준 하반기 금리 올릴까

때문에 금값, 나아가 달러와 국채금리 향방, 그리고 주식 시장 내 자금의 흐름에까지 고르게 영향을 미칠 가장 중요한 변수로 하반기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연준의 통화정책. 관련해 한국은행은 '2026년 하반기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보고서를 통해 대다수 투자은행들이 연준의 금리 사이클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 소개함.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개 투자은행 중 JP모건과 바클레이즈, 웰스파고, 노무라, TD뱅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 총 7곳이 연준이 연내 금리를 현 3.50~3.75로 동결할 것으로 예상. 이외 뱅크오브아메리카와 도이체뱅크 등 두 곳은 각각 하반기 중 25bp씩 세 차례(75bp) 금리 인상과 두 차례(50bp) 금리 인상을 전망. 씨티 한 곳만 올해 4분기 중 50bp 금리 인하를 전망함.

이는 노동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는 가운데 중동발 유가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 상승 위험의 확대로 금리 인하 전망이 대체로 철회됐으나 하반기 OBBBA 시행에 따른 세 부담 축소 효과가 소멸하고 고유가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 효과가 나타나 소비 증가세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는만큼 금리 인상 전망도 조심스럽다는 시각으로 읽힘.

다만 AI 인프라 관련 기업 투자 확대가 소비 회복세 지연을 얼마나 상쇄할지, 그리고 미국과 이란 간 세부 협상 전개 추이와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정치지형의 변화 등은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

한편 이날 미국 연방 대법원은 정부 내 독립 기관 소속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해임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림. 다만 대법원은 연준에 대해서는 독특한 역할이 있다며 대통령이 독립기관 수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다수 의견이 연준으로 확대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이에 손을 대려던 트럼프 대통령을 저지한 결정으로 읽힘.

특징종목

AI 테마 반등: 반도체, 대형 기술 성장주 강세

전일 시장 하락의 원인이 됐던 반도체주 하락이 멈추고 오히려 강하게 반등하며 시장 상승의 동인이 됨.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가 3.83% 상승했고 엔비디아(+1.27%), 브로드컴(+2.04%), 마이크론 테크놀로지(1.14%), AMD(+3.43%), 인텔(+2.65%), 마블 테크놀로지(+4.12%), 램 리서치(+8.39%),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10.82%), KLA(+11.96%), 시게이트(+7.63%), 웨스턴디지털(+11.16%) 등 관련주가 고르게 상승했으며 특히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와 KLA 등의 장비주는 각각 10% 이상의 급등으로 신고가를 경신했음.

한편 이날 반도체주 전반의 강세를 반영해 VANECK SEMICONDUCTOR ETF(SMH)(+3.33%), ISHARES SEMICONDUCTOR ETF(SOXX)(+4.14%), INVESCO PHLX SEMICONDUCTOR ETF(SOXQ)(-5.56%) 등 반도체 대표 ETF들도 전일의 5% 내외 하락을 딛고 반등함.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편입 비중이 높은 ROUNDHILL MEMORY ETF(DRAM)(+0.08%)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1%대 반등에도 전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부진했던 영향으로 제한적 상승세를 기록함.

물론 전 종목이 상승한건 아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8.10%)는 대만 당국의 반도체 밀수 조사 과정에서 현지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주가가 급락함. 반도체 공급망 관리와 대중국 수출 규제가 다시 시장 변수로 부각됨. 이와 관련해서는 미국 상원에서 애플(-0.72%)의 중국산 블랙리스트 반도체 사용 시도에 대해 공개 경고도 있었음.

한편 전 거래일 오픈AI IPO 상장 지연 검토설이 불려온 AI 인프라 투자 확대 지연에 대한 우려를 오히려 호재로 반영했던 소프트웨어주는 이날 기업별로 엇갈린 흐름. 마이크로소프트(-1.18%)를 비롯해 세일스포스(-0.28%)는 하락 마감했지만 팔란티어(+2.45%)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엔터프라이즈 스택이라고 평가한 가운데 상승. 사이버 보안과 AI 서비스 분야에서는 액센추어(-3.29%)와 서비스나우(+1.66%)가 AI 기반 사이버 보안 플랫폼을 공동 출시했음. 다만 주가는 양사가 엇갈림.

오라클(-0.52%)은 지난주 AI 투자와 부채 부담 우려로 2001년 이후 최악의 주간 하락률

을 기록, 이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소폭 약세 마감.

컴캐스트: 막 내린 통신-미디어 합병 흐름

컴캐스트(+4.53%)가 NBC 유니버설과 스카이를 분사해 두 개의 상장사로 분할하기로 했음. 이를 통해 현금 창출원인 광대역 통신 사업부, 그리고 스트리밍 경쟁사들의 압박과 업계 재편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디어/엔터 사업부를 분리하는 것. 시장에서는 이번 결정으로 NBC 유니버설이 매력적인 인수 대상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전망. 특히 워너브라더스 인수 경쟁에서 패한 넷플릭스(-0.04%)가 관심을 보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옴. 이번 컴캐스트의 분할 결정은 2010년대 통신사들이 콘텐츠와 유통망을 결합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추진했던 통신 미디어 합병 흐름이 막을 내리는 대표적 사례로 꼽히게 됨.

경쟁 통신사 버라이즌(-5.24%)과 AT&T(-3.96%), T모바일(-3.96%)의 주가는 모두 하락했는데 버라이즌은 영국 BT 그룹과의 합작법인 관련 사업을 매각 예정 자산으로 분류하면서 2분기 7억~8억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이외 특징주

테슬라(+8.46%)는 기가 텍사스 관련 발표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14개월만에 최대폭 상승. 2분기 판매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는 중. 스페이스X(+7.15%)는 7월 7일 나스닥 100 편입 확정 이후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를 바탕으로 상승. 한편 블룸버그는 차터 커뮤니케이션즈(+9.38%)와와 스페이스X가 소비자용 휴대전화 서비스 출시를 위해 독점 협상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는데 차터는 스페이스X의 일부 모바일 통신 트래픽을 자사의 지상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급등.

AST 스페이스모바일(+21.44%)은 블록-2 블루버드 위성 생산 가속화를 위한 핵심 부품을 추가로 공급받았다고 발표. 블루버드 11, 12, 13호기 출하를 앞두고 있으며 현재 37호기까지 생산 진행 중.

로켓랩(+15.93%)이 위성통신 서비스업체 이리디움 커뮤니케이션즈(+25.44%)를 80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힘. 이는 로켓에서 위성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보유하는 것이 차세대 우주기업의 경쟁력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피터 벡 로켓랩CO는 이리디움에 대해 “그 자체로 이미 수익성이 매우 높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평함.

스트래티지(+12.60%)가 20억 달러 규모 자사주 매입과 비트코인 운용 계획을 발표한 뒤 강세. 스트래티지는 최대 1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각 가능성도 공시했음.

일라이릴리(+1.81%)와 리제네론(-0.17%)은 FDA 제조시설 신속 심사 프로그램의 첫 번째 대상 기업으로 선정됨. 헬스케어 업종은 일부 제약주를 제외하고는 금요일 강세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애브비(+0.38%), 휴마나(+1.32%), 존슨 앤드 존슨(+1.51%), 일라이 릴리, 머크(+0.56%) 등의 신고가 랠리는 이어짐.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이란 휴전 의구심 속 국제유가 반등

국제유가는 주말 있었던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여파를 반영하며 반등해 배럴당 7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섬. 앞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은 주 중반 있었던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상선에 대한 이란측 공격을 문제 삼아 이란을 공습함. 이란도 이에 인근 지역 미군기지를 공격해 위기감이 고조됨. 양측은 일단 상호 군사 행동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스텝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주장들이 나와 경계감을 다시 높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란이 회담을 요청했으며 내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힘. 백악관 대변인도 스티브 윗코프 특사와 재러드 쿠슈너가 이번주 고위급 회담을 위해 도하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내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도 윗코프 특사와 쿠슈너가 이날 도하로 출발하며 다음날 카타르 총리 등과 만나 이란 회담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함. 다만 이란 외무부는 이번주 전문가 대표단이 도하로 가긴 하지만 이는 미국과의 협상이 아닌 종전 양해각서 이행 여부 점검을 위한 것이라고 하며 향후 며칠간 미국 측과 어떠한 수준에서의 협상 회의도 예정돼 있지 않다고 밝힘. 이는 결국 중동 지역 갈등의 완전한 해소는 여전히 가까이 있지 않을 수 있음을 일깨웠고 이에 국제유가는 반등. 실제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량은 전쟁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와 비교해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남.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는 2.20% 상승한 배럴당 70.75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8월물은 1.61% 상승한 배럴당 73.15달러에 마감.

금가격은 유가 상승과 함께 하락했으며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 그룹(CME) 산하 금속선물 거래소 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전장 대비 1.5% 가량 하락한 트로이 온스 당 3,046달러선에 마감함. 장 중 4,000달러선을 위협받기도.

달러 가치 사흘째 하락

미국 달러 가치가 3거래일째 하락. 영국 파운드화가 차기 총리 후보자의 건전 재정 강조 발언에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 역시 ECB 총재의 인플레이 위험 지속 가능성 언급으로 유로가 상승하는 등 여타 주요 통화 강세가 이날 달러 추가 하락으로 이어짐.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장 대비 0.242% 하락한 101.095를 기록. 유로/달러 환율은 0.34% 상승했고 파운드/달러 환율도 0.48% 상승.

다만 엔화는 여전히 달러/엔 환율 기준 162엔을 위협하며 약세권에 머물렀는데 이날 달러/엔 환율은 161.97엔까지 올라 1986년 이후 최고(엔화 가치 최저)를 경신함. 일본은행의 개입에 대한 경계감은 여전히며 이날도 장 중 고점 이후 일본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이 포착됨.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하루만에 다시 1,540원대를 돌파해 1,545.20원에 마감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1,543.00원으로 2.20원 하락함. NDF 달러/원 환율은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70원)을 감안하면 전일 증가 대비 4.20원 상승한 1,540.30원에 마감.

국채금리 혼조

미국 국채 금리는 전반적인 움직임의 폭이 제한적인 가운데 보험권에서 혼조세를 보임. 유가 반등으로 금리 인상 베팅이 다소 상승해 금리 상승 요인이 되기도 했지만 이번주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중동 상황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국채 금리 움직임을 제한함.

2년물 금리는 1.2bp 상승한 4.1045%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0.6bp 상승한 4.3744%를, 30년물 금리는 0.1bp 하락한 4.8630%를 기록.

시카고상품거래소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이날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낮춘 19%대로 반영했으며, 연내 한 번 금리 인상 가능성은 41%, 두 번 인상 가능성은 29%대로를 각각 나타냈음. 세 번 이상 인상할 가능성은 9% 후반대로 집계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